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속가능한 문화관광¹⁾

사례연구 : 프놈펜 비엔티안 워크숍 및 현장

아마레스와르 갈라
국제인클루시브박물관 관장

I. 서론

프놈펜 비엔티안 워크숍과 여기에서 도출된 현장은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동남아시아 및 동티모르의 여러 공동체에서 참가한 박물관과 문화유산분야 지도자들의 주도 하에서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 준비 과정에서 후속 작업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통일성은 전적으로 아시아의 언어적, 문화적 지도에 따라 관리, 감독되었다. 이는 국제박물관협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이하 ICOM)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시도한 주요 계획으로 문화유산 환경이 잘 보존된 선진국이나 부유한 국가의 사례와 방법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의 문화 공동체와 집단에서도 꼭 효과가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서는 이해당사자 혹은 무형문화유산 연행자와 전승자 공동체에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였다.

1) 아마레스와르 갈라, 「동남아시아 박물관, 문화지도, 문화유산관광」, ICOM&인클루시브박물관연구소, 파리/프놈펜/비엔티안/코펜하겐, 2011

ICOM은 박물관 발전에 있어서 지역 리더십을 통한 문화민주주의와 주인의식을 증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달성하는 동시에 식민지시대 이후의 진정한 박물관학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사안으로 인식된다. 또한 이는 2005년 주인의식, 조화, 합일성, 성과, 그리고 상호 의무의 원칙을 다룬 원조 효과성에 대한 파리 선언(principles of Ownership, Harmonisation, Alignment, Results and Mutual Accountability of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과도 일맥상통한다.

전 과정에 걸쳐 참가자들이 제공한 자료에서 얻은 원본기록은 가급적 잘 보존되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번 프놈펜과 비엔티안 워크숍(이하 PPV 워크숍)기간에 이루어진 모든 활동에 관한 진정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영문 간행물을 포함하여 전 PPV 워크숍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참가자와 협력자(facilitator)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점은 매우 높히 평가할 만한 것이다. PPV 워크숍은 유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 언어적 다양성에 대한 서약을 존중한다. 이는 세계화에 인간미를 더하고,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을 위협하는 획일화의 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화하는 것이다.

스톡홀름 실천계획(Stockholm Action Plan, 1998)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하네스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2)의 성과는 문화유산 통합 관리(Integrated Heritage Management), 더 정확하게는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발전(Sustainable Heritage Development)이라는 체제를 마련하는데 있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문화자원과 공동체 권한 위임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² 유네스코 국제 표준화 장치들, 특히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001),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o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 및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2005)은 문화 콘텐츠의 연속성과 이들 표현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포괄적 접근법의 개발을 요구한다.

핵심과제는 참여 민주주의의 증진과 실천, 그리고 문화유산자원과 인근 지역 공동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공동체 중심의 문화 발전을 위한 사회 생태주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과 훈련 분야의 국제적인 모범사례가 절실했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박물관학 및 생태박물관학 접근법이 모델로서 제시된다.

그러나 공동체의 문화적 가치와 문화유산이라는 포괄적 개념화가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발전의 틀 속에서 유형과 무형, 자연과 문화, 동산과 부동산 문화자원을 통합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불과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PPV 워크숍은 2007-2010 ICOM 전략계획과 동남아시아 및 동티모르 지역의 국가 문화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II. 프로젝트와 워크숍의 개념화

PPV 워크숍은 문화관광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지도(cultural mapping)와 더불어 공동체 기반의 자원 개발과 관련된 일부 주요 사안을 다루었다. 이번 워크숍의 궁극적인 목표는 박물관이 국내외 관람객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회합의 장소로서 문화유산 자원의 체험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및 빈곤 퇴치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접근법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제도적 차원에서는 물론 주요 이해 당사자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인적 자원의 개발이었다.

시급한 문제들 중 하나는 문화지도 제작에 필요한 기술력이다. 문화지도 제작에 활용되는 도구, 방법 및 모델은 단순한 측량에서 복잡한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디지털 기술과 정보 처리, GIS의 급속한 발전을 고려할 때, 측정 지역을 목록화하고 공간 정보 형태로 전환하는 일은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다. 그러나 데이터를 지도로 제작하는 일은 타당성, 적절성, 소유권, 문화적 다양성과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존중, 정보에 근거한 지지, 전문성 및 공동체 기반의 접근법에 초점을 맞추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주요 이해 당사자의 기본적인 요구³가 잠재적인 기술적 부담으로 인해 쉽게 묵살될 수 있다. 박물관은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핵심 이해당사자, 연행자와 전승자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동남아시아 박물관과 문화유산자원은 점진적으로 관광개발 분야로 포함되어 가는데, 이는 해당 지역 국가에서 최우선의 경제적 관심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환경과 문화자원 보호와 개발 간의 갈등, 방문객 증가와 문화재 밀거래 증가에 따른 수

2) 2012년 6월 리오+20지구정상회담(Rio+20 Earth Summit)에서 발전 속의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유네스코 역시 2012년 발전 속의 문화 캠페인을 다시 시작했다.

3) 아마레쉬와르 갈라, 「문화유산보존의 첫 번째 목소리(The First Voice in Heritage Conservation)」, 「무형유산 3집」, 2008년 6월, 1~17쪽

요와 그 영향 등 새로운 난제들을 야기했다. 문화유산 자원이 상품 개발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제품의 홍보와 판매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관광이다. 세계 최대 성장 산업인 관광은 무형문화유산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강화하며 새천년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체 발전을 준비함과 동시에 문화유산 자원 보호의 중요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표와 가능성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프놈펜과 다양한 인근 공동체의 문화지도 제작 사업이 이번 워크숍의 출발 배경이었다. 캄보디아 국립박물관이 그 중심이 되었다. 이 박물관은 캄보디아 왕궁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수도 프놈펜과 그 주변 지역에 관심이 있는 방문객 대다수의 눈에 띄는 장소이다. 그러나 이 인근 지역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적용 가능한 문화적 유산 명소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더군다나, 캄보디아 당국은 캄보디아 남부 역시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기에 이르렀다. 현재까지는 앙코르 와트를 중심으로 한 시엠립(Siem Reap)이 주력 사업이었다. 그에 따라, PPV 워크숍의 첫 번째 장소는 프놈펜이 되었다. 2001년 4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동남아시아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ICOM 워크숍에서, 라오스 대표단은 도시와 지방 박물관 및 유산 보유 지역에서 실무 워크숍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박물관과 문화관광에 관한 워크숍 개최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따라서 PPV 워크숍의 두 번째 파트는 비엔티안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2001년 4월 ICOM 지역 워크숍에 참석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90여명의 대표자들이 하 롱 베이로 방문하여 하 롱 생태박물관(Ha Long Ecomuseum)에 대해 알게 되면서 이번 PPV 워크숍 개최에 대한 아이디어가 싹트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하 롱 베이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1, 제2, 제3의 이해 당사자들을 아우르기 위해 공동체에 기반한 문화지도 이용과 보존과 개발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써 하 롱 생태박물관의 유용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개발은 하 롱 생태박물관 프로젝트의 불이성(non-duality)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 프로젝트에서 보존이나 혹은 개발이나라는 이원론적 논쟁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은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다. 참가자들은 또한 관광산업의 급성장으로 훼손되기 쉬운 환경의 보존 문제와 광닌지방의 하 롱 베이와 내륙지역의 무형문화유산과 문화적 다양성 보호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III. 개발 속의 문화

개발 과정에서 문화를 심도 깊게 이해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생태박물관 방법론을 세 가지 다른 환경 영역에 적용해보았다. 생태박물관 지역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구역이다. 해당 지역 거주자들은 자신들의 문화유산의 보호자인 동시에 유형·무형 유산을 보존하는 큐레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하 롱 생태박물관은 해양 환경에 위치한다. 호이 안(Hoi An) 생태박물관은 투 본 강과 참 아일랜드 생물권 보전지역에 위치한 세계유산 호이 안 고대 도시와 지역 주민을 아우르기 위한 지역 통합 계획 체제이다. 다즐링 히말라야 철도는 중국을 가로지르며 모든 유산적 가치를 하나로 아우르면서 해당 지역을 인도에서 가장 다문화적인 지역 중 하나로 만들어낸다. 해양, 강과 산악 지역이라는 세 가지 환경에서, 총체적 보존 윤리 규범으로 알려진 생태박물관 방법론을 적용하여, 주요 이해 당사자 집단과 그들의 문화유산을 하나로 결합시켰다.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이들 세가지 유산에 대한 사례연구 내용은 PPV 워크숍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하 롱 생태박물관은 2007년 생태박물관으로는 세계 최초로 국립 박물관이 되었으며 현재 측정 가능한 문화적 지표를 통해 빈곤퇴치를 위한 MDGs에 근거한 공동체 기반의 몇몇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꾸아반 세계 유산 지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수상 어촌 마을에 위치한 수상 박물관과 문화센터(Cua Van Floating Museum and Cultural Centre)는 바다 위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현지 지식체계에 기초한 간접적 환경 관리법을 활용한다. 또한 집단 기억의 전시관으로, 현지 주민의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한다. 여기서 무형문화유산이란 오래된 과거와 최근의 기억, 겹겹이 쌓인 문화유산 가치와 의미를 말한다. 백여 년에 걸친 전쟁과 기아와의 투쟁을 종식하기도 한다. 하 롱 생태박물관은 공동체 문화유산 가치와 세계 문화유산 가치를 이해하고, 통합하며 증진하기 위한 첫 번째 하 롱 생태박물관 발전 프로젝트로 어린이들을 위해 인근 수상학교에 교과과정을 제공하였다. 수상 어촌 공동체라는 장소성과 정체성의 인식은 역동적이며, 이제 육지에 기반을 둔 공동체와 동일한 존엄성과 존중을 요구한다.

호이 안 생태박물관은 탄하(Thanh Ha), 김봉(Kim Bong), 방니(Vang Nghi), 캄안(Cam Anh), 트란 퀴(Tran Qui) 등 문화유산 마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MDGs도 함께 다룬다. 이들 마을의 주민들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호이 안 고대 도시를 건설하고 유지했다. 이제 세계의 관심은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참 아일랜드 해양 보호지역(Cham Island Marine Protected Area)에 집중되고 있다. 과거 파이포(faifo) 또는 아므라바티(Amravati)라 불린 호이 안 지역은 역사적으로 참

(Cham)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다. 호이 안 생태박물관은 장소성과 지역 주민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수단으로 문화를 이용하여 주요 이해 당사자 공동체의 생계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급성장하는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다양한 시범 프로젝트와 세제조치를 통해 호이 안 지역의 늘어나는 부를 분배하여 빈곤과 결핍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베트남 생태박물관은 2001년 새롭게 제정된 국가문화유산법의 도입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 해당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무형문화유산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개최된 수십 차례의 워크숍 특히 식민주의적 사고를 영속화하는 과거의 유산을 검토하기 위한 집중 컨퍼런스 및 기타 회의들은 박물관과 호기심의 방(curiosity cabinet)을 화석화하였다. 베트남은 수십 년 간의 고립을 종식시키는 개혁개방정책 도이 모이(Doi Moi)를 실시하면서 중대한 학습과정의 전환을 필요로 하였다. 심지어 전직 미국 조종사도 봉사자로서 호치민시의 전쟁박물관을 찾게 된다. 이제 조종사들은 비행일지와 기록사진을 가져오고, 전시중인 비행기와 헬기에 대해 설명한다. 재외 베트남인들은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적, 세계적 맥락에서 무엇이 베트남적인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과거와 화해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문화유산 인식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문화유산 다즐링 히말라야 철도는 의도적으로 하 룡 생태박물관 방법론을 도입하여 주요 이해당사자 공동체가 철도 유산 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색했다. 이는 철도 건설에 참여했던 원주민의 후손,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 주민, 카스트제도에 의거한 관리계층과 차농장을 중심으로 하는 운영계층 모두를 아우른다. 식민지 시대에 영국인을 위해 건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근로자들은 인도의 독립 이후에야 처음으로 봉급을 받았다. 해당 지역이 영국에 양도되었던 식민지 기간 동안, 토착민인 렵차인들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현재 렵차인들은 인구의 1 퍼센트 미만을 차지하며, 이는 전세계에 걸친 수많은 토착민에게는 매우 익숙한 식민주의 시대의 이야기이다. 현지 주민을 위한 자치권 확대를 요구했던 민중 투쟁의 결과 성립된 다즐링 고르카 힐 위원회(Darjeeling Gorkha Hill Council)는 인도철도회사와 함께 다즐링 히말라야 철도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생태박물관 방법론은 철도 근로자 및 역무원, 차농장의 노동자와 소유주, 수도원과 선교교육 기관 및 불교사원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연대하는데 적용되었다. 선로를 따라 위치한 다즐링 히말라야 철도 기차역이 현장 박물관으로 탈바꿈했다. 이들 역들은 해발 60

미터의 뉴잘패구리에서 해발 2,530미터에 위치한 굽과 다즐링 힐 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생태박물관학은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발전의 핵심 수단이다. 다즐링 히말라야 철도와 다즐링 계곡을 변화시키는데 베트남의 사례를 적용한 경우에서 보듯이 생태박물관학은 매우 고무적인 방법론이다. 방법론으로써 생태박물관은 지역민의 문화유산과 그들의 우선적 요구를 보호활동에 포함시키고 유산을 변화시키고 활용하는 일에 현지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함으로써 세계화와 지역화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을 완화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생태박물관은 식민주의 시대의 유물을 다룬다. 생태박물관은 치유를 위한 공간으로써 문화유산의 존재와 안녕을 도모한다. 생태박물관 방법론에 있어 문화지도와 문화계획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문화지도

- 문화지도는 주요 이해 당사자로서 공동체의 관심을 포함하며, 지역문화와 유산 자원을 확인하고 기록한다.
- 문화지도는 지역의 통합 계획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고 실행함으로써 효과적인 인간중심 공동체 개발을 촉진한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장품, 유적, 회랑, 예술품과 공예품, 고유한 지형지물 및 자연풍경 및 현지 산업과 같은 유형문화요소와 음성, 가치, 전통, 기억, 민중 생활, 축제, 특별 행사 및 방치된 공동체 역사 등 무형문화요소들을 기록한다.
- 문화지도는 공동체가 선택한 집단적인 공동체 기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 이해를 같이하는 공동체를 유일무이하게 만드는 문화유산종목을 조사한 다음, 이러한 종목을 기록, 보호, 증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나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전과정을 문화지도에 포함한다.

문화계획

- 문화지도 프로젝트 결과에 기초한 문화계획은 채용전략과 관광개발을 공시하고, 역사적 유적지, 문화경관, 가두풍경 또는 소장품을 복원하며, 문화의 중심이자 축제와 특별행사의 협력자로서 박물관을 설립함으로써 문화 체험과 상품을 확대한다.
- 문화유산 통합 관리 방법에 따라 추진되는 문화계획과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발

전에 대한 참여함으로써 박물관은 무형문화유산과 지역 콘텐츠, 표현의 문화 다양성을 동시에 보호하는 시민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

- 문화 계획은 후기 식민지 사회에서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이는 공동체에 기반을 둔 통합 계획과 지속가능한 경제적, 문화적 발전의 핵심적 요소이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와 같은 국가에서 지역 공동체의 경제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됨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IV. PPV 워크숍의 촉진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PPV 워크숍 프로그램의 목적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박물관 직원들이 효과적으로 문화지도 제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해당 지역에서 문화유산과 관광 산업 사이의 전략적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있다. 각 국 참가자들은 먼저 자국의 수도에 모여 PPV 워크숍의 개요와 요건에 대해 토론했다. 참가자들은 일부 토론 보고서를 모국어로 작성한 다음, 국제공용어인 영어로 번역했다. 해당 자료는 PPV 워크숍 개최 2주 전에 모든 참가자들에게 배포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든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사례연구를 PPV 워크숍에 포함시키고 다양한 주제로 다각적인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프놈펜 비엔티안 현장의 초안 작성에 영향을 미쳤다. 해당 보고서들은 회보의 상당히 중요한 일부로서 재발행된다.

캄보디아에서 열린 PPV 워크숍 파트 I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문화지도와 문화계획의 실무적 정의, 범위 및 가치를 수립하고, 모든 다양성 안에 유형 및 무형 문화유산 자원을 포괄한다.
- ICOM의 문화 다양성 정책을 참고하여 워크숍의 틀 안에서 ICOM 라파스 권고안(ICOM La Paz Recommendations), WTO 현장, 츠와니 선언(Tshwane Declaration) 및 기타 국내외 현장에 대해 토론한다.
- 캄보디아 국립박물관을 협력자로 하여 프놈펜 인근의 선택된 지역에 대한 문화지도 제작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법을 개발한다.
- 최상의 보존과 경제적, 공동체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역량강화 워크숍의 접근법을 활용한다.

라오스에서 열린 PPV 워크숍 파트 II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동남아시아의 문화유산 관광의 현황을 반영하고 검토한다.
- 동남아시아 각 국에서 최소 하나 이상의 사례 연구를 소개하고 토론한다. 참가자들에게 사전에 상세한 사례연구자료를 제공한다.
- 표준양식문서를 통해 시범사례 개발을 위한 주제별 소규모 워크숍을 실시한다.
- 참가자들을 위한 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워크숍의 틀 안에서 ICOM 문화적 다양성 정책의 개정안에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문화 다양성과 문화관광에 대한 지역 현장의 초안을 마련한다.

PPV 워크숍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 업무수행 기준 틀 : 참가자들이 각자의 박물관과 주변 공동체 속에서 문화지도 제작 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준 마련
- 권한 : 공동체와 박물관 분야 종사자 모두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와 문화 다양성 원칙 증진
- 역량강화 : 문화지도 워크숍 참가자들을 위한 전문 능력 개발 및 훈련
- 지식공유 : 문화간 대화를 통한 문화관광 촉진을 위해 50개 이상의 사례연구와 효과적인 지역네트워킹 소개
- 모범사례 : 미래의 문화유산과 관광산업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 틀 또는 현장

PPV 워크숍은 ICOM 캄보디아 의장의 대리인 쿤 사면(Kun Samen)과 하브 터치(Hab Touch), ICOM 라오스 의장 통사 사야봉캄디(Thongsa Sayavongkhamdy)와 ICOM 부위원장이며 ICOM 교차문화 태스크포스 의장인 아마레쉬와르 갈라가 PPV 워크숍 디렉터를 맡아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주최자들은 다른 동남아시아와 동티모르 국가 대표자의 지지를 기반으로 PPV 워크숍의 기획 진행 인력으로 활동하였다. PPV 워크숍은 2006년 7월 29일에서 8월 8일에 걸쳐 캄보디아 프놈펜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진행되었다.

동남아시아와 동티모르 국가들에서 약 60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들은 특히 문화/유산 관광 분야는 물론 지역사회 연계 활동과 박물관 콘텐츠 개발 담당자로 구성되었다. 지역 역량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수 많은 라오스와 캄보디아 대표들이 PPV 워크숍에 참석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인류와 유산을 하나로(Brining people and their heritage

together)'라는 강력하고 종합적인 보존 윤리규범을 주창하는 '국제간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조직되었다. '동남아시아의 박물관, 문화지도, 문화 다양성 및 문화관광'이라는 표제가 붙은 PPV 워크숍은 특히 MDGs와 관련된 많은 다양한 주제를 포함시켰다.

주최측은 참가자들에게 정보공유를 위한 자료, 예를 들면 관련 문화유산 보존 활동 자료, 문화관광 콘텐츠, 무형문화유산 종목에 관한 자료, 지역 문화유산 자원 보호에 있어 젊은 세대의 역할과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자료 등을 사전에 개발된 양식에 맞추어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PPV 워크숍이 협력학습과정에서 참가자들이 가장 적절한 자료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참가자들은 문화지도제작과 지역의 요구에 대응하는 능력과 문화지도제작에 필요한 소통기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소통기법은 콘텐츠를 전달하고 즉각적인 학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참가자들이 자신의 박물관에서 트레이너이자 지역프로젝트 코디네이터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PPV의 마지막 세션에서는, 참가자와 교육 협력자의 평가, 참가자의 박물관 안에서 문화지도제작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 자원의 적절한 유기적 통합 또는 경험공유, 지속적인 문화유산 보존과 봉사활동 개발을 위한 네트워킹 접근법의 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참가자들은 유기적 맥락에서 자신들의 박물관과 인근 공동체에서 실행할 수 있는 지도제작 연습과 지역성에 기초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본개념설계도를 개발할 수 있었다. 2주간의 워크숍 시작 초기, 협동학습에 있어 모두가 교사이며 트레이너라는 점에 대한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PPV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워크숍은 다음과 같은 지침이 필요했으며 모든 참가자들에게 이를 설명하였다.

- 워크숍을 개별 참가자들의 모임에서 공통의 목표와 동기를 가진 학습자 협력체로 전환한다.
- 자기 동기 부여 등 자발적 학습 참여와 자신의 학습성과에 대한 책임감을 장려한다.
- 소규모 팀 내의 다른 참가자들과 협력하여 독자적인 진로와 기술 그리고 학습 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과 자부심을 육성한다.
- 문화적 다양성과 다양한 의견과 태도에 대한 존중을 배양하여,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작업한다.
- 참가자 집단의 교차문화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집단의 참가자들은 PPV 워크숍 전반은 물론 일별 세션에서 다른 그룹의 업무를 보완하여 공동 훈련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참가자들은 주제별 PPV 워크숍을 통해 지식과 역량을 축적하고 최종 기준설정 현장 작성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참가자들은 6개 그룹으로 나뉘었으며, 각 그룹에는 협력자로 선정된 경험이 풍부한 박물관 전문가가 포함되었다. 참가자들 간의 더욱 폭넓은 상호교류, 네트워킹, 그리고 문화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주 동안 그룹의 구성원을 교체하였다.

캄보디아에서 열린 전반기 PPV 워크숍 기간 동안 연구방문을 위해 다음 문화유산 지역에 대한 관련 문서가 제공되었다.

1. 유평(Uddong) 지역 : 국도 5번을 따라 프놈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캄퐁스프(Kompong Speu) 지방의 산악지역에 위치한 역사적 유적지로 16~17세기 캄보디아의 고대 수도였던 곳이다. 왕실에 속했던 사리탑이 몇 개 남아 있는데, 사리탑의 상륜부는 벽돌로 만들어졌다. 이 유적지의 완충 지역에는 중요한 무형문화유산 가치가 있는 청동 주물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공동체가 존속하고 있다.
2. 앙코르 보레이(Angkor Borei) 지역 : 국도 5번을 따라가면 프놈펜 남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타케오(Takeo) 지역의 역사적 유적지로, 첸라(Chen-La) 왕조의 마지막 수도로 추정된다. 두 개의 주요 사원 이외에도 몇몇 사원들이 위치하는데, 그 중에는 캄보디아 최초의 사원도 포함된다. 이곳 유적지에서 출토된 물질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앙코르 보레이 박물관이 설립되었다. 이 지역 공동체의 주요 무형문화유산 자원으로 직조기술이 있다.
3. 프렉 창크란(Prek Changkran) : 국도 1번을 타고 프놈펜 동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프레이-빙(Prey-Ving) 지방에 자리한다. 지역 주민이 다양한 견직물을 생산하여 국내외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특별 지역이다. 무형문화유산과 문화관광을 위한 문화유산 허브로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박물관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4. 프렉 통(Prek Thong) : 강을 사이에 두고 수도와 아주 근접해 있는 칸달(Kandal) 지역에 위치한다. 직조 전통을 가진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국립 박물관이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후반기 PPV 워크숍은 라오스에서 개최되었다. PPV 워크숍은 광의의 문화관광 또는 소위 생태관광과는 다른 문화유산 관광에 초점을 맞추었다. 문화유산 관광은 재생 불가능한 문화유산 자원의 보존 및 보호, 개발 그리고 진흥을 특징으로 한다.

PPV 워크숍에서 다룬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책임 있는 문화유산 관광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
- 동남아시아 국가의 정책 위상
- 동남아시아의 문화유산과 관광 산업의 위상
- 문화유산 관광에서 부각되고 있는 핵심 사안
- 기회 및 창의적 발전
- 문화유산 관광의 사례연구
-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
-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력 마케팅
-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문화유산 산업
- 빈곤 퇴치와 지역 경제 발전에 있어 박물관 역할
- 동남아시아의 중요 문화유산 자원의 관광개발을 위한 기준 설정

라오스에서 열린 PPV 워크숍 두 번째 파트 동안 진행되었던 연구방문 지역으로는 다음의 문화유산 지역이 고려 대상이 되었다.

- 비엔티안은 라오스의 수도로 비옥한 충적 평야를 가로지르는 메콩강이 굽이치는 곳에 위치하며 정부기관이 자리잡고 있다. 파란만장했던 과거에도 불구하고, 비엔티안(현지인들은 '위엥찬'으로 발음)은 평온한 도시로, 수 많은 흥미로운 불교사원과 생동감 넘치는 시장이 있다.
- 라오스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기념물은 파타 루앙(위대한 성스러운 스투파)으로 불교와 라오스의 자주권을 상징한다.
- 그 밖의 흥미로운 명소로는 과거 왕실 사원이었으며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되는 왓 프라 캐우(Wat Phra Kaew)와 비엔티안에서 가장 오랜 된 사원인 왓 시사켓(Wat Si Saket)이 있다. 씨앙 쿠안(Xieng Khuang)은 흥미로운 불교와 힌두교 조각상들이 모여 있으며, 비엔티안에서 남쪽으로 24km 떨어진 목초지에 위치한다.

V. 현장의 초안 마련

PPV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1970, 2001, 2003 및 2005년 유네스코협약 각각의 복사본과 ICOM의 모든 관련 현장, ICOM 윤리강령, ICOM 문화 다양성 정책, ICOMOS와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 현장, 남아프리카 공화국 츠와니 선언, 기타 관련 국가 및 지역 문서를 제공했다. 동남아시아 및 동티모르에서 참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박물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주라는 시간을 투입한 워크숍을 통해 반드시 의미 있고 유용한 문서를 도출해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해당 문서는 문화유산 관광 개발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현장 초안 작성을 위한 실무진으로 권한을 위임 받은 팀은 인도네시아 문화관광국 박물관 관장 인탄 마르디아난 N.M. 흠(Intan Mardiana N.M. Hum) 박사와 라오스 정보문화부 박물관 및 고고학국의 DG DMA 통사 사야봉캄디(Thongsa Sayavongkhamdy) 박사와 미얀마 문화부 고고학국 국장 유 쯔 윈(U Kyaw Win), 문화예술 국가위원회 박물관 국가위원회 위원장 앙겔 P. 바우티스타(Angel P. Bautista) 4인으로 구성되었다.

실무진은 PPV 워크숍의 프놈펜과 비엔티안 세션 내내 해당 초안을 검토하였으며 2006년 8월 7일 폐막식 만찬에서 라오스 문화부 장관과 모든 대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프놈펜 비엔티안 현장이 채택되었다.

VI. 결론

프놈펜 비엔티안 워크숍은 동남아시아 및 동티모르의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유산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시민의 공간이자 추진력으로써 박물관을 자리매김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 아래 기획, 실행되었다. 2주간에 걸쳐 열린 워크숍은 최초로 박물관 관장, 큐레이터, 정책 담당관 및 문화유산 공동체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최대규모의 프로그램이었다. PPV 워크숍은 매우 실용적이었으며 현장에 토대를 둔 협력학습과 워크숍과 총회 기간 내내 제기된 개념상 의구심을 하나로 결합한 것이었다. 모든 이해 당사자, 특히 주요 이해당사자 공동체와의 필요한 윤리적 연계를 통해 지역 네트워킹과 향후 박물관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강력한 공감대가 참가자들 간에 형성되었다. 관광산업의 급성장은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 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관광산업이 제공하는 기회는 극대화하고 문화유산 자원과 문화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나 위협은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참가자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이러한 원대한 목표는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발전에 있어 주체이자 주도자인 박물관의 제도적 역량 강화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바로 첨부된 프놈펜-비엔티안 현장 작성과 채택 뒤에 숨은 정신이다.

문화다양성과 문화유산 관광에 관한 프놈펜-비엔티안 현장

동남아시아 박물관, 문화지도, 문화유산 관광에 관한 워크숍

‘인류와 문화유산을 하나로’

2006년 7월 30일~8월 8일 캄보디아 프놈펜과 라오스 비엔티안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동티모르의 60명의 대표들은 ‘인류와 문화유산을 하나로(Brining People and their Heritage Together)’라는 제목으로 열린 ICOM 국가간 지역 워크숍에서 사례연구, 워크숍 및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연구방문에 참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권장한다.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발전의 맥락에서, 박물관은 시민 공간으로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의 혜택은 극대화하고, 이해당사자 공동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한다.
- 발전 과정에서 문화의 위치를 확인하고, 아세안 회원국들이 문화유산에 관한 아세안 선언(ASEAN Declaration on Cultural Heritage)에서 최우선 과제로 지지하였듯이 동남아시아의 책임 있는 문화유산 관광을 보장한다.
- 유형과 무형, 동산과 부동산, 천연과 문화, 창조성과 공동체 등 문화유산 자원의 체계적인 문화지도 제작을 위한 적절한 방법론을 개발하며 인클루시브박물관 증진에 대한 ICOM의 서약에 따라 최우선 과제로 인정된 인류의 풍부한 문화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다.
- 2001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과 2005년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을 촉진한다.

이해 당사자의 참여

- 문화유산 자원과 인근 공동체를 결합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문화유산 관광을 통해 문화유산 자원의 완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빈곤 완화에 기여할 공동체에 기반을 둔 개발을 활성화한다.
- 공동체와 이해당사자에 대한 폭넓은 이익분석을 실시하여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실행이 주요 이해 당사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 ICOM 윤리강령의 규제를 받는 윤리적 개발의 실천을 촉진한다.
- 방문객에게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려주고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이들이 중개상에게 착취당하거나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고 개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 자원에 대한 양질의 해석을 제공하는 공인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민요구의 다양한 관점과 중요성을 전달한다.

문화적 다양성

- 인종, 민족성, 피부색, 성별, 나이, 신분, 경제적 지위, 종교, 언어, 성적 취향, 지역 정체성을 고려한 동남아시아의 풍요로운 문화적 다양성을 확인함으로써 문화지도와 문화유산 관광 개발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한다.
- 성인지적 관점을 접목시켜 박물관과 문화유산 관광 개발이라는 전체적인 영역에서 여성 문화유산의 대표성을 다룬다.
- 종교를 초월한 대화와 교차문화적 교육을 위한 세속적 공간으로 박물관을 장려하여, 평화롭고 조화로운 문화를 조성한다.
- 연구, 해석, 관리를 위한 자원인 동시에 동남아시아 고유의 문화적 인식, 표현 및 전통을 반영하는 언어의 다양성과 언어적 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장애인이 문화유산과 관광 분야에서 직원, 자원봉사자, 관람객으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문화지도

- 효과적인 인간 중심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지역 통합 계획에 따라, 이해당사자 공동체가 지역 문화유산 자원을 파악하고 기록하는 과정으로써 문화지도를 추구한다. 유·무형 문화유산 자원을 통합하기 위한 기록화와 표준화된 목록작성 체계 수립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이를 위해 지방, 주, 지역 차원에서 상당한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동남아시아의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핵심 단어와 주요한 용어의 시소러스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 채용전략과 관광개발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지도제작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한 문화계획을 추진하여, 양질의 문화 체험과 상품을 통해 축제 및 특별 행사의 문화 중심이자 협력자로서 박물관을 발전시킨다.
- 문화지도를 통합계획과 지속가능한 경제·문화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며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데 중요한 수단을 제시한다. 또한 후기 식민지 사회에서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확인한다.
- 문화지도 작성의 테두리 안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박물관을 학교와 성인학습센터와 같은 교육기관과 더불어 참여적 교육 체계에 끌어들이고, 교사를 위한 모듈식 교육자료를 개발한다.

문화유산 관광

- 관광산업 분야에서 문화유산 자원 활용을 책임지고 있는 박물관과 민간분야 사이의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추구하며, 지역 전문가, 자원 및 기획의 이용을 극대화한다.
- 관광소득으로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관광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문화유산 보존, 발전, 유지관리, 해석,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급성장하는 관광산업에 맞서 해당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공인제도 및 박물관 증명서 제도를 도입하여 해설자, 교육전문가,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최우선으로 한다.

‘인류와 유산을 하나로’ 라는 제목으로 열린 ICOM 국가간 지역 워크숍의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구상한다.

- 2007년 모임을 위해 동남아시아 박물관 연합회(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Museums)와 연계한 ICOM 동남아시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
-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박물관 및 문화유산 발전을 위해 국제최고위교육센터(International Training Centre of Excellence)를 설립한다.
- 동남아시아의 박물관을 통한 문화적 다양성과 책임 있는 문화유산관광을 추진하기 위한 옹호 캠페인을 시작한다.



인탄 마르디아난 ICOM 인도네시아 위원장	혼. 반 몰리반 ICOM 캄보디아 위원장	아마레쉬와르 갈리 ICOM 부위원장 ICMO 교차문화 태스크포스 의장	통사 사야봉캄디 ICOM 라오스 위원장
-------------------------------	------------------------------	---	-----------------------------

2006년 8월 7일

동남아시아 박물관, 문화지도 및 문화유산관광

참가자 명단

브루나이

카림 빈 켈기란 오스만 박사 : 부루아니 박물관국 고고학 큐레이터
 푸다르노 빈친 : 말레이시아 기술 박물관 운영자 겸 민속지학 큐레이터
 하나피 하지 마이딘 : 박물관국 고고학과

캄보디아

쿤 사멘 : 캄보디아 국립박물관 관장
 포름 레반트 : 문화미술부 차관보 고고학자
 텍 사린 : 문화국 국장
 하브 티치 : 캄보디아 국립박물관 부관장
 림 트라이 : 문화유산국
 향 소완 : 문화국 과장
 체이 삼사반 : 유산국 부국장
 체이 소페아라 : 캄보디아 국립 박물관 부관장/투올슬렝 대량학살 박물관(Tuol Sleng Genocide Museum) 관장
 수오스 소다비 : 문화미술부 예술공예국 조형예술 부국장
 침 소티 : 조형예술국 과장
 쯡 보린 : 문화미술부, 유산국 부국장
 케르야 차우 : APSARA 앙코르 관광개발국, 국장

동티모르

마누엘 스미스 : 교육문화부 문화박물관과 과장

인도네시아

Dra. 인탄 마르디아나 N.M. 홈 : 문화관광국 박물관 관장
 KP. 사무엘 J. 하료노 박사 : 올렌 센투루 재단 이사장
 트리강가 : 문화관광국 자카르타국립박물관, 등재기록부 부장
 유누스 아르비 : 자카르타국립박물관
 레오다두스 나하크 : 동부 누사 핑가리 지역 박물관, 교육출판부 부장
 드조코 누그르호 위각소노 : 중앙 자바 박물관 ‘Ronggowarsito’ 공공서비스출판부 부장
 Krt. 토마스 하르요나고로 : 올렌 센투루 예술문화박물관 관장/CEO

라오스

비앵케오 소옥사밧디 : 정보문화부 박물관/고고학국, 고고학연구부 부장
 분호항 보우아시생파세트 : 라오스 국립박물관 부관장(기술)

팻말레이반 케오본마 : 라오스 국립박물관 부관장
 삼레인 루안가파이 : 박물관/고고학국, 유물부 부장
 통사 사야봉캅디 : 정보문화부 박물관/고고학국, DG DMA
 마이 린 흰 : 라오스 국립박물관 인턴, 호주청년사절단
 칸다 케오소파 : 문화유산관리부 고고학자

말레이시아

레슬레라와티 빈티 압둘라 : 말레이시아 박물관국 국립박물관 큐레이터
 모드 파이루즈 빈 모하메드 카심 : 국립박물관, 보조 큐레이터
 로사이디 빈 모하메드 : 국립역사박물관 수석 보조 큐레이터

미얀마

우 쯔 윈 : 문화부, 고고학국 국장
 우 테인 르윈 : 빼이 고고학국 고고학 학교(빼이) 교장
 우 민 와이 : 양곤 고고학국 부국장
 우 예 미얏 아웅 : 만달레이 문화 박물관 및 도서관 부관장
 우 민 킨 마웅 레이 : 몬주 문화 박물관 및 도서관 부관장
 우 세인 토 : 고고학국 부국장

필리핀

빅토리노 마날로 : 마닐라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관장
 세실리아 켈리카메 : 라살대학 박물관 Museo De La Salle, 관광 및 프로그램 관리자 /프로그램 담당자/교육담당자
 안젤리타 B. 푸카난 : 국립박물관, 고고학 유적지/부속 박물관 부서 책임자
 앙겔 P. 바우티스타 : 국립박물관위원회 의장/ 국립박물관, 문화유산국, 국립 문화 예술위원회 큐레이터 I
 레이문도 안드레스 V. 팔라드 : GSSIS 예술박물관(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 Museum of Arts) 관장
 존 실바, 필리핀 국립박물관 이사회 자문

싱가포르

엘리자베스 조 : 국립문화유산위원회 공공교육국 부책임자
 헤이디 탄 : 아시아 문명 박물관 수석 큐레이터(동남아시아 담당)

태국

팻차니 찬드라세카 : 송크라 국립박물관 관장
 니타야 카녹몽골 : 칸차나피섹 국립박물관 큐레이터
 아마라 스리수чат : 람캄행 국립박물관 관장

베트남

호 수안 링 : 기념물과 유산 보존을 위한 팡남 센터 박물관학 전문가
 응웬 티 투에트 : 베트남 국립 여성 박물관 관장
 호 비엣 도안 : 베트남 남부 여성 박물관 관장
 트란 트롱 히에우 : 문화정보부 국립문화유산국 행정부문 차장
 응웬 비엣 쿠응 : 국립문화유산국 유물/기념물 관리부 전문가
 도 티 녀크 유엔 : 기념물 관리보존을 위한 호이 안 센터
 레 티 탄 빈 : 기획 국제협력국, 후에 문화유산보존센터
 레 딘 풍 박사 : 고고학연구소 역사고고학부 부장

기타 국제 참가자

한민호 : 한국 국립민속박물관, 섭외교육과 과장
 안 라이순 교수(ICOM-CCTF) : 중국 농업박물관(국립 농업전시관) 기획개발국 국장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아마레쉬와르 갈라 교수 : ICOM 부위원장, ICOM 교차문화 태스크포스 의장
 킴 셸링 박사 : ICOM 교차문화 태스크포스 의장 지원 프로젝트 담당자
 제니퍼 테브노 : ICOM, 프로그램 활동 담당자
 엘로이사 젤 : ICOM, 회원국 서비스 담당자

※ 주의 : 몇몇 별도 참가자가 감독관으로 참석했음.